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세가지 삼매의 조건-無相

무상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특징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일체의 집착을 떠난 경지를 말한다. 원래 한문의 상(相)이란 글자는 모습을 지칭하지만 정해진 특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특징이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집착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삼매의 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중일아함경>제31 역품에는 다음과 같은 설법이 나오고 있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 때문에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설법은 매우 인식론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상은 끝없는 판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해탈하기 위해 호오를 가리지 말고, 그것에 애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너를 구분하며, 빈부귀천을 중시하며, 지역과 종교, 국적과 학적 등에 연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들을 애착하게 만들까? <잡아함경>제36에 의하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우리들을 애착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천인이라는 수행자가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몇 가지 법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몇 가지 법으로 서로 매달리고/ 몇 가지 법으로 애착하게 되고/ 몇 가지 법으로 세상을 해치게 되는가?"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세상은 일어나고, 서로 따르며,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애착을 일으켜/ 여섯 가지 대상에서 세상을 해친다."

부처님과 천인의 문답에 의하면 애착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여섯 가지의 근본이란 의미에서 육근(六根)이라 하며, 이들에 의해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인식의 대상(이들은 통칭 욕경)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세상에 해악을 미치게 된다. 이 세상은 빛, 소리, 맛, 감촉,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되어진 우리들이 말하는 사물이나 세상이라는 공간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인간들은 다시 그 공간의 영

에고·번민등 일체의 집착 떠난 경지 현실속의 자기 직시하는 지혜 필요

세상을 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에도 좋고 나쁨을 떠나 어느 것에도 애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애착은 자신의 의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스스로를 번민케 하고 불만에 빠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애착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면에는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배려가 숨어 있다. 동일한 인간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기 식으로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고집한다. 나아가 자신의 시각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판단의 한계를 이미 지니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누가 더 정확하게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고 노력 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원적인 오류 속에서 애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을 차별하고 남

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희망이란 결국 애착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을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눈, 귀, 코... 등의 통제력을 변질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허락되고, 선한 공덕을 지니지 못하며, 불건전한 인식의 대상으로 서로잡혀 번민하게 된다.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않다면 죽은 인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현실의 자신을 직시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역시 변화는 과정에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상을 체득한 사람이다.

<본지 삼십년설위원 · 불교학 박사>

기본질서 파괴 원인·결과 모두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빠르고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부터 먼저 챙기다 보니 기본과 질서가 너무도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온갖 협박이 난무하는 정치권 소식과 과소비 풍조, 부모를 상해하는 패륜 범죄 소식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듭니다. 이 모든 게 기본과 질서가 파괴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화목이 깨지고, 스님들이 승가에서 청규(淸規)를 지키지 않으면 혜안(慧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사천의 법문들은 모두 세상 만물의 돌아가는 기본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공동체 속에서 공익(公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나 하나 쫓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질서라는 문제는 작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과 같은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크게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아가 현대문명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바로 우리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기본과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어 그 해악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이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연법에 대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인연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와 미물에 이르기까지, 세계와 중심이 서로 떨어지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소속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할 사람이 병약자에게 혜택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본 순리이자 질서인 것입니다.

여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의 기둥, 서까래, 기와 등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집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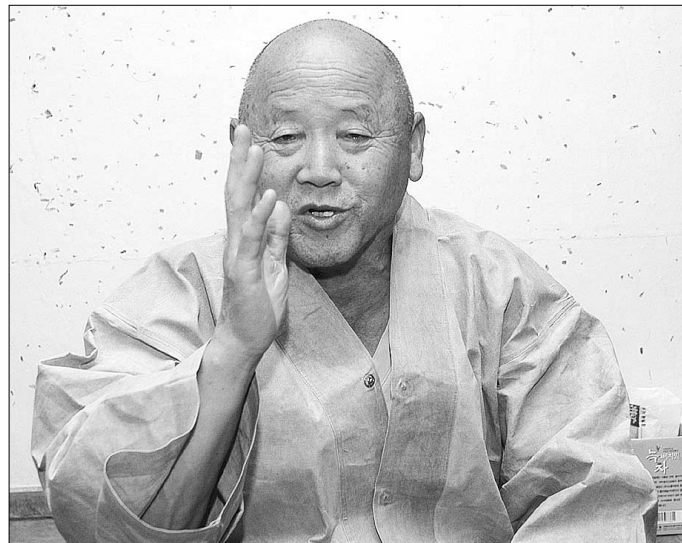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최근 들어서는 망각되어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개발논리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공의를 무시해 정쟁에 휘말린 우리 정치권, 수많은 실직자와 거리에 내몰린 노인들, 오직 흡세지향의 교육



지상 백고좌

혜운스님

(대구 여석원장)



◇"요즘은 질서가너무도 파괴되고 있어요"라며 긴 한숨으로 법문을 시작하는 혜운 스님.

"나 하나쯤..."하는 생각 버리고 正見으로 마음자리 밝히세요

만을 받아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이 모든 현상들은 기본질서를 망각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질서가 파괴되는 근본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편안하려는 마음, 무엇이든 다

를 사람보다 쉽게 이루려는 욕망, 근본이치를 따르지 않고 욕심만을 택하려는 진퇴가 바로 세상질서의 파괴를 가져오고, 또 역으로 우리가 파괴된 질서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적어도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는 안될 것입니다만, 젊에 참배하러 와서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기도를 하는 신도님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참 지기를 찾는 일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신도들은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잔소리하느냐는 식으로 돌아앉기 일쑤지요. 그러나 바른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건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기본 질서의 파

불교의식(범음·범패) 제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범음,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묘 또는 범사님에게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해백 도량식, 종성염불, 상단세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예불통장), 산중퇴공, 행진축원, 불공축원, 관음시, 배송, 사미유법 및 조발심 사경문)
- ▶ **의식중급반(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시련절차, 천도, 48계 재공편, 전법안법, 설교의식, 시향불공, 시식, 배송, 다비연, 방생의식, 분상 및 행화 전안법, 예수제외문, 구명시식 등
- ▶ **제장인선설치법, 명가축원문작성법, 위계, 지의, 전, 작성법**
- ▶ **작법반: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천수비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계) 회의제전비라
-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오후 1시~3시 (2시간) * 특별강사초빙
- ▶ **사물명상반 내용**: 내정, 광의, 복치는법(현수부, 정근부, 정영염불부, 요점부)
- 기 간: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 **속성반**: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7-14(2층) ☎ 053)955-7725
원장 주동주(동현) 합정

고혈압·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이 만병이 있습니다 *

-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j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저림, 눈이 침침함 등
- ◆ **혈전용해요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 효과와 과학적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핵심) (안나베라자를 보내드립니다)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영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오시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도반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인원동 -

승복

- **의상, 조끼, 바지** W160,000
- **동방, 바지** W160,000
- **두루마** W140,000
- **W60,000**
- ◆ 모직(율 50%) ◆ **판복** ◆ **순면(무늬있는 면복)**

라 부

- **구김이 없고 색채이 아름다운 재질** A. W130,000 B. W150,000
- **라** W160,000
- **모직** W160,000

겨즈

- **W20,000 ~ 35,000원**

해동승복
대구 교외역시 동구 신암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장삼, 가사, 비방 및 기마리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영험도량

희마승 예연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괴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신부터 참회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불자라면 기본과 질서의 파괴는 곧 나라부터 기인한 것이요, 그것은 육신 즉 집착하는 습(習)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보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마음자리를 밝게 가지는 것이 필요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 정견(正見)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사물의 겉만 볼 뿐 알고 내면의 세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나와 남은 다르다는 편견과 독단에 빠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과 독단은 마치 이상한 색이 들어있는 안경과 같아서 그런 안경으로 사물이 제대로 보일 리 없는 것이지요. 혜명(慧明)을 갖고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색안경 즉 아상(我相)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승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 승가도 요즘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이 되려면 한 10년 동안 나무도 하고, 공양주도 하면서 스님들 뒷바라지를 충실히 해야 겨우 사미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구계를 받더라도 참선과 수행을 게을리 하면 은사 스님의 호된 호통을 듣는 게 비일비재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 쉽게 스님이 될 수 있어요. 또, 젊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승이 되려 무던히도 애씁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뒤로한다면 이것은 절 물을 축내는 밭도둑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승가에서는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는 고유의 대중공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승가에 세속의 선거라는 제도를 들여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선거라는 제도의 장점도 많지요. 하지만 이로 인한 병폐도 상당하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결국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에



◀ 먼 하늘을 바라보는 혜운스님의 눈길엔 중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

남보다 편안하려는 마음
무엇이든 쉽게 이루려는 욕망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어리석음

버려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과 질서를 바로 보고 진리에 따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요사이 많은 사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여럿 생기곤 합니다. 우리 승가가 이렇게 계속 세속화된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승가는 승가다울 때 비로소 삼보의 하나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질서라는 것에 함의됩니다. 승가에서 고유하게 유지돼 왔던 대중공사를 지키지 않고 삼보리 세속의 선거를 들여옴으로써 선거가 가지고 있는 유해한 것들도 함께 가지고 온 것이지요.

선거를 통한 종관장담의 이전투구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심망>의 첫구절을 보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박함을 깨달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알으면 통연히 명백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을진대 어찌 남을 헐뜯고 비방하겠습니까. 이런 절 집안 풍토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스님들은 절안에 있지도 못해요. 복한 토포를 들고 실직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절 집안의 어른들을 먼저 존중해야 그 집안이 잘됩니다. 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해온 종단의 노스님들이 숙식이 어려워 이곳 저곳을 떠돌다던 그 어찌 자비문중이라 하겠습니까.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젓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른 법을 배우고 알게 되더라도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 어리석게 배우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훌륭한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실천을 쌓아나가 부질없는 집착과 욕심을

정리=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기자가 본 혜운 스님

혜운(慧運) 스님은 1930년에 출생해 17세의 나이로 동학사에서 대강백 무불 스님으로부터 강을 배우다가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스님은 상원사 선방에서 수선안거후 1961년부터 20여 년 간 동화사 열불암 주지소임을 보다가 여여선원을 장전하고 현재까지 수행정진하고 있다. 열불암에 있을 동안에는 노모를 모시고 극진히 봉양했으며, 이후 어머니도 출가해 모자가 함께 수행하는 복덕을 누리는 등 스님의 지극한 효성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스님은 질서가 파괴되고 기분이 지켜지지 않

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수행자는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불자는 불자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평생 자동차, 핸드폰 등을 소유한 적이 없다. 지금은 후학들을 위한 길을 터 주기 위해 여러 소일들을 놓았지만, 매일 아침 여여선원 옆에 위치한 놀이터에 나가 어린이들이


청소년 포교에 심혈...매일 놀이터 청소

리나라에서도 좋은 곳, 기발 만한 곳이 많은데 외국에까지 가서 외화를 뿌리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그 흔한 외국여행조차 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혜운 스님은 청소년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교련연합회 대구경북지부장을 10년 간 역임하는 등 사회의 새익인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금은 후학들을 위한 길을 터

주기 위해 여러 소일들을 놓았지만, 매일 아침 여여선원 옆에 위치한 놀이터에 나가 어린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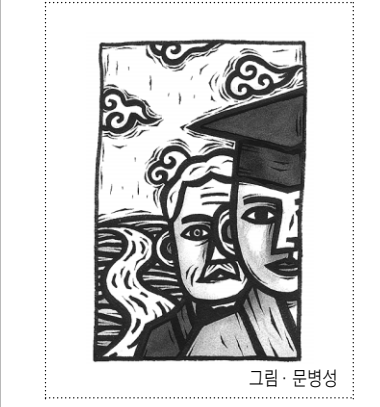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우는 등 틈틈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73세의 노구에도 중생에 대한 자비심만은 식을 줄 모른다.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아스님

세상에는 길이 많다. 땅 위에는 사람이 길을 만들고, 허공에는 새들이 길을 만든다. 바다에는 배들이 길을 만들고 수행자는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여기서 달려가고 싶을 때 속도를 조금 늦출 줄 아는 지혜, 힘들어 걸기 싫을 때 꾸준한 길을 옮길 줄 아는 인내, 이런 마음의 질서가 있는 수행자는 삶이 충만할 것이다. 언제나 시간을 충실하게 쓰는 스님, 일아 스님은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스님이다. 누구보다 알뜰하게 수행자의 삶을 직시하고 걷는다. 다른 종교 수도자의 삶에 근 십년에 가까운 시간을 체험하고 즐기는 스님이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처님 제자로서의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 강원 학인시절부터 일아 스님의 반듯한 생활의 질서는 도반들의 느슨해지는 정진의 끈기까지 살피게 했다. 아마 구족계 수계를 앞두고 서류 준비를 할 때로 기억한다. 다른 종교 수도자로 짧지 않은 시간



그림·문병성

을 살면서 은 가족을 그 종교의 신자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홀연히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로 유학 간 줄로만 알고 있던 가족들이 서류가 운문사로 발송된 것을 통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길로 운문사로 달려 왔었다. 물론 일아 스님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소임자 방에서 두문불출했고 가족들은 우리 딸, 우리 동생 내 놓으라며 삼일 밤잠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왔다. 나는 그때 일아 스님과 한 방에서 함께 자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있다가 너무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사법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수도자는 사법을 하지 않으니가 생활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고 입회를 했단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고 견딜 수 없어서 단호하게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했다. 그 이후 가족들에게는 연막 한 번 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까맣게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한 고비를 넘기고 구족계를 받았다. 졸업 후에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얼마 동안 수행한 후, 미국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 유학을 간 것이다. 보스턴 캠퍼리지선원에서 일년 정도 정진하면서 승산 스님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미국 LA에서 일아 스님을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뉴욕 주립대에 입학하고 다시 학부부터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스님은 역시 철저한 시간관리와 흐트러짐 없는 생활의 질서를 유지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노력으로 4년 졸업을 할 당시 외국인으로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스님이 우수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짐작이 가기도 남는다.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강의 시간마다 녹음을 해서 듣고 또 들었지. 몇 번을 그렇게 들으면서 교수의 강의를 한 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고, 그 강의 내용을 다 외워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 시험에서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제출해야 할 때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고 말했다. 생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철저하다. 스

“유학간다” 가족에 알리고 홀연 출가

빨리어 경전 한국어 번역에 몰두

님의 이런 섬세한 질서는 <화엄경>을 볼 때 80화원을 하루에 몇 페이지, 내지는 몇 권을 봐야 일년에 끝 낼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계산할 때 알았던 바이지만 글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초심시절 강원에서 서툰 한문을 공부할 때 강사 스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들었던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아 스님은 학부 4년 동안 모든 성적을 A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LA 서래대학교에서 투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지도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 까지 여형 한 번 가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세월이 일아 스님을 비껴가지는 않는 지라 이제 스님도 이순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나이에도 스님은 빨리어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다지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국의 불자들을 격정하며 논쟁을 제외한 니가야와 경장과 출강에 나오는 중보되는 내용을 정리한 한 권으로 엮어서 무료로 배포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오늘도 오롯하게 한없이 무량한 부처님 말씀 속을 걷고 있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물' 진행자

불가도인של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של 정제של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של 불교전래 항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불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등효 귀신병등 병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이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획번호 : 능 업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래사** 주지 심욱 법장 합장 (011-245-5467)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름에 따라 디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중원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적응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세뎌를 갈아 맷을 오슴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들을 챙기는 오슴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기가 침화하는 오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중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익 그 어떤 익한 중원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력입니다

- 영가의 적응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병마다 가워늘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1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 :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 무 명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 무명, 면 : 면 100%(역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 솜 없는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 정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어걸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정보살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실현

지명스님

세백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리고 한다. 옛날 여승을 바탕으로 짚어지고 꾀박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를 여마다 내왔다. 다시 타고 다음으로 왕하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천 지하를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자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총가 후 출궁 지정보살님을 모시고 발원해 발원을 거듭하며 중진하던 중 지정보살님의 화엄하심을 경험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아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명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계위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모지전에 이른 수월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부구에 분양을 마치고 계속 불사중이며 중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려며 지정보살님께 '이 땅의 방랑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산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혼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1857-4576, 0171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